

## 그리스 문화에 끼친 오리엔트 문화의 영향과 그 변용

— 지하 세계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

| 최 혜 영 |\*  
CHOI, Hae Young

### **Cultural Intercourse between the Orient and Ancient Greece: Focusing on the Underworld Women in Myths**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ultural intercourse between the Orient and the ancient Greece around the Mediterranean area.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Underworld queen-characters in myths. In the first chapter, I try to trace the common aspects between Ereshkigal, the Sumerian goddess of the Underworld and Persephone, the Greek goddess of the Underworld. Even though the most powerful goddess of the Underworld of the Orient(Ereshkigal) seems different from Persephone, a dependent weak daughter and unwilling queen of the Underworld in Greece, the earliest evidences show that Persephone was originally a great goddess like Ereshkigal. In short, I conclude that Persephone was a Greek Ereshkigal. In the second chapter, I deal with Medusa, who lived in the Underworld as an attendant of Persephone, and Perseus who was well known for killing Medusa. Medusa, originally a powerful and

---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011-9853-3284. chyoung@chonnam.ac.kr



benevolent being from the Orient, changed into a wicked monster, eventually killed by Perseus in Greece.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ose powerful goddesses in the Orient changed into weak or wicked presences in Greece.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names of Persephone, Perseus, Medusa are all deeply related to the Underworld and whose origin seemed to be from the Orient.

**[Key Words: Ereshkigal, Underworld Queen, Persephone, Medusa, Perseus, Mediterranean Cultural Intercourse]**

## 1. 들어가는 말

최근 고대 지중해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세계 간 상호교류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관심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는 버날(M. Bernal)이 『블랙 아테나』에서 주장한 서구 문명의 오리엔트 기원설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sup>1)</sup> 최근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은 복잡성, 유동성과 상호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sup>2)</sup> 카틀리지(P. Cartledge)나

1) M. Bernal, 1987,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버날에 의하면 서구의 고전 문명이 오리엔트에서 기원하였음은 고대로부터 서구인들 스스로 인정하여 오던 것이었으나, 18세기 중엽 이후에 두드러진 유럽적 우월감 및 19세기의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마치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처럼 왜곡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왜곡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독일 괴팅겐의 고전학 교수 뮐러의 인도-유럽어족설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뮐러는 그리스 고전 문명이 아시아 아프리카와 별 상관없이 인도-유럽인 자신에 의해 이룩된 것이라고 보았다.

2) 최근의 이러한 연구 추세나 동향은 세계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불(H. Bull)은 앞으로의 세계는 민족주의로 조각나기 전의 국가적 면모가 나타날 것 즉 ‘새로운 중세’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보다 시원적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고대 지중해 모델’이 도래한 것이 아닐까 한다. cf. G. Delanty, 1995, *Inventing Europe, Idea, Identity, Reality*, London: St. Martin's Press, 8.

프리맨(Freeman) 등은 기원전 5세기 이전에는 그리스인들은 하나의 구별된 민족이나 문화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스다움’이라는 관념은 오리엔트 세계와의 전면적 충돌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생김으로써 나타난 산물이었으며, 그나마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집단들 사이의 ‘유동적이며 모호하며 인위적인’ 개념이었다고 보는 것이다.<sup>3)</sup> 고대 지중해 사회, 특히 동지중해 사회는 오늘날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이는 종래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별개의 同種的 문화로 가정하는 소수 엘리트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음을 의미하며, 오리엔트 문화와의 교류를 언급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크레타 등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에 그려진 사람들은 뚜렷하게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으로 볼 수 없는 섞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를 ‘지중해인’이라 부른다.

고대 지중해 세계는 교류와 혼합의 사회였고<sup>4)</sup>, 특히 신화의 세계에서 지중해는 하나의 문명권이었다. 카르모스, 에우로페, 이오, 다나오스, 아이깁토스, 다나에,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메데이아, 아에네아스 관련 수많은 신화들은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개념도 중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주민이 토착민이 되고 다시 다른 이주민이 들어오고 혼합되는 등, 끊임없이 다중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이동하며 이주하던 사회가 바로 고대 지중해 사회였기 때문이다. 즉 고대 지중해 문화 교류는 일방향이거나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혹은 여러 방향적이며 복합적이며 중층적

3) 물론 그리스인들 사이에 같은 언어, 종교, 관습상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러한 점들은 이제까지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고 본다. P. Cartledge, 1993, *The Greeks*, Oxford, cf, C. Freeman, 1996, *Egypt, Greece and Ro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 예를 들어 그리스의 사모스섬은 지척에 있는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증언하듯이 이집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리스와 레반트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크레타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로 증명된다. 지중해 특히 페니키아인이나 크레타인, 사모스, 로도스 등지에 살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프리기아 언어나 리디아 언어를 비롯하여 그리스어, 쉐어, 이집트어 등 적어도 두 개 세계 언어는 사용할 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집트와 소아시아의 종교적 신화적 전통의 섞임은 레반트의 시리아-이집트 문화를 낳았다.



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도 각각의 지역 특색에 따라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문화로 성장하여 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고대 지중해의 지하 세계와 관련된 신화적 여성 혹은 이와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젠더 시각을 곁들여서 고대 지중해 문화 사이의 중층적인 교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페르세포네와 같이 ‘페르세-’로 시작하는 단어는 페르세우스, 페르세이스 등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로든 오리엔트, 특히 페르시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나아가 그리스의 페르세포네, 헤카테, 메두사 등의 여성의 존재가 오리엔트의 수메르의 지하세계의 여왕 에레슈키갈과 지하의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고대 지중해를 둘러싼 그리스와 오리엔트 간 교류의 흔적을 보이려 한다.

## 2. 에레슈키갈, 페르세포네, 헤카테

### 2.1. 에레슈키갈

고대 수메르를 비롯한 오리엔트 신화에서 지하 세계의 여왕은 에레슈키갈(Ereshkigal, Ereshkigal)이다. 에레슈키갈은 자기의 자매인 하늘의 여왕 이난나(아카드어로는 이슈타르)를 죽음에 몰아넣을 정도로 강력한 지하의 여왕이었다. 에레슈키갈에 대한 기록은 ‘지하 세계로 간 이난나’ 수메르판에 나온다. 하늘의 여왕이자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이난나<sup>6)</sup>는 하늘과 땅을 버리고 지하세계

5) 페르세스 혹은 페르세이스를 오래된 태양신 혹은 태양의 여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태양은 지하세계, 암흑에서 태어난다고 생각되었으므로 지하세계와 태양은 동전의 양면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G.C.W. Warr, 1895. “The Hesiodic Hekate,” *Classical Review* 9, p.391; K. Kerényi, 1979. *Goddesses of the Sun and Moon*, Dallas, p.4, cf. R. von Rudloff, *Hekate*, p.16.

6) cf. 최혜영. 2004.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 이시스, 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4집. 한국서양사학회. 여신 이난나의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난-안-나(nin an na) 즉 하늘의 여왕에

로 내려갔다. 일곱 겹의 메(me)를 착용하고 지하세계에 도착한 그녀는 출입구인 간지르 궁전의 문을 열어달라고 문지기 네티에게 요구한다. 연락을 받은 지하 세계의 여왕 에레슈키갈은 문지기에게 지시하여 이난나가 일곱 개의 문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메를 하나씩 벗겨 받도록 하였으므로 지하세계에 도착하였을 때 이난나는 벌거벗게 되었다. 거기서 에레슈키갈이 이난나의 눈을 응시하였을 때, 일곱 명의 심판관인 아눈나키의 저주에 의하여 이난나는 죽게 되고, 그녀의 시체는 고깃덩어리처럼 갈고리에 걸리게 되었다.<sup>8)</sup> 여기서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은 하늘과 풍요의 여왕 이난나마저도 못에 고깃덩어리로 걸어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여신이다. 에레슈키갈의 모습은 ‘발톱은 구리갈퀴와 같고, 머리는 부추(뱀처럼 늘어진 이파리)처럼 그녀의 머리를 덮었다’고 묘사된다.

또한 에레슈키갈이 네르갈 신과 결혼하는 아카드 신화가 있다. 하늘에 살던 신 네르갈은 어떤 연유로 에레슈키갈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가

---

서 왔을 것이라고 보며, 기원전 4000년 말 도시국가 우룩의 수호신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난나의 아카드판인 이슈타르는 기원전 3000년 중반경부터 이난나와 합치기 시작한다.

- 7) 메(me)는 신적인 힘을 의미한다. cf. J.J.A. van Dijk & W.W. Hallo, 1968, *The Exultation of Inanna*, New Haven, p.15. cf. J.G. Westenholz, 1998, “Goddesses of the Ancient Near East 3000-1000 BC,” *Ancient Goddesses*, eds. L. Goodison & C. Morri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pp. 74, 204.
- 8) 이난나가 안 돌아오자 시종 닌슈부르는 도움을 찾아나서는데, 지혜의 신 엔키가 ‘성별이 없는’ 쿠르가루와 칼라투루(kurgarru & kalaturru) 두 명을 창조해준다. 엔키로부터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물을 받고 지하로 내려간 이들은 에레슈키갈을 설득하여 이난나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한다. 지상으로 돌아오게 된 이난나에게 저승신들이 그녀 대신 다른 이를 넘길 것을 요구하자, 석류나무 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즐기던 남편 두무지를 지하 세계의 영들에게 넘긴다. 저승에 가게 된 두무지는 그의 누이 게쉬틴안나의 도움으로 누이와 두무지는 각각 반년씩 저승에서 살게 된다. 이의 아카드 버전은 수메르 버전보다 1000년 뒤에 나타난 ‘지하 세계로 간 이슈타르’로, 수메르 버전보다 짧아서 3분의 1정도의 분량이다. ‘달의 神인 신(Sin)의 딸 이슈타르’는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암흑의 땅(Kumugi)으로 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난나가 문지기에게 ‘내가 들어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문을 부수어버릴 것이고 볼트를 부수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산자를 먹게 할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많게 할 것이다’고 위협하자, 에레슈키갈은 일곱 문을 지나게 하되, 지날 때마다 장신구나 옷들을 하나씩 받게 하였다. 앞에 도착한 이슈타르에게 화가 난 에레슈키갈은 남타르에게 예순 개의 질병을 그녀에게 옮기게 하였다. 이슈타르가 죽자 더 이상 땅에는 생산이 멈추었다. 이슈타르의 신하 파프스칼은 슬픔의 옷을 입고 신(Sin) 神에게 가 울면서 이슈타르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의 눈물을 본 지혜의 신 에아가 ‘성별이 없고’ 용모가 매우 빼어난 아수슈나미르(Asushunamir)를 창조하여 에레슈키갈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이슈타르는 살아나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된다.



〈‘밤의 여왕’ 대영박물관 소재〉

야 하였다. 네르갈이 지하에서 하늘로 무사히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지하의 유혹을 피해야만 하였다. 지하의 신 에아는 네르갈에게 ‘빵 굽는 이가 빵을, 고기 굽는 사람이 고기를, 술 만드는 사람이 술을 주어도 먹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에 에레슈키갈이 그녀의 몸을 보일 것이니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 네르갈은 유혹에다 넘어가 실패하였지만, 결국 하늘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에레슈키갈은 네르갈이 ‘나의 남편이 되도록, 나와 함께 살도록’ 네

르갈을 잡아 오라고 사신 남타르를 보낸다. 결국 네르갈은 지하 세계로 되돌아와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로 가고 그녀의 남편이 된다.<sup>9)</sup>

고대 오리엔트 사료에서 죽은 자의 장소는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장소로 묘사된다. 대체로 지하 세계, 아래 혹은 북쪽 혹은 서, 동쪽 그리고 항상 저 넘어 머나먼 곳으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이난나는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저 먼 아래로 내려간다’고 마음먹는다. 수메르어로 우주는 안-키(an-ki)인데, 즉 안(an)은 하늘이며, 키(ki)는 땅이라는 뜻이다. 땅 아래는 쿠르(kur) 혹은 키갈(ki-gal)로 불렸다. 에레슈키갈이 여왕으로 있는 곳은 바로 지하 세계인데, 이곳은 땅거죽과 ‘원형의 바다’ 사이에 있다.<sup>10)</sup> 지하 세계를 흐르는 지하의 강은 남자를 삼킨다고 알려졌으며, 죽은 자들은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다. 이 원형의

9) cf. N. Marinatos, 2000, *The Goddess and the Warrior*, London: Routledge, pp. 41 ff.  
10) A. M. Fiske, 1969, “Death : Myth and Ritual,” *Journal of Academy of Religion* 37, pp. 249-265.



바다, 창조 이전의 어두움, 대양 등은 메소포타미아어로 아브주(Abzu)라 불리었으며, ‘그 성(sex)은 구별되지 않는다’.

대영박물관은 일명 ‘밤의 여왕’으로 알려진 서판을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다. 하와보다도 먼저 존재하였다는 인류 최초의 여성 릴리트라는 설, 이난나(이슈타르)라는 설, 에레슈키갈이라는 설 등이 있는데, 대체로 지하 세계의 여주인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별명도 ‘밤의 여왕’이다.<sup>11)</sup> 그 가운데서도 엘리자베스 폰 오스텐 작켄(Elizabeth von der Osten-Sacken)은 이 여신을 에레슈키갈로 보았으며, 특히 2004년 대영박물관은 인터넷 뉴스룸 리포트에서 이가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일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였다.<sup>12)</sup>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쇠퇴 이후에도 2000년 이상 비문자료, 특히 마술문서, 저주문서 등에서 여전히 등장하며, 지역적으로 오리엔트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그리스어 권역에서도 발견된다.<sup>13)</sup> 예컨대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 여왕 자바의 무덤에서 발견된 비명에는 ‘지하의 위대한 신들인 샤마쉬와 에레슈키갈 그리고 아눈나기의 생명을 두고, 여왕 자바는 자연스런 죽음으로 삶의 끝에 도달하였다’<sup>14)</sup>고 되어 있다. 마술문서의 용어

11) 이 서판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D. Opitz)도 있으며, P. Albenda처럼 그 시기와 발견 경위를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P. Albenda, 2005. “The Queen of the Night Plague: A Revisi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5, 2, pp. 171-190.

12) Elizabeth von der Osten-Sacken, 2002. “Überhungungen zur Göttin auf dem Burney-Relief,” *Sex and Gender in the ancient Near East*, eds. S. Parpola & R. Whiting. Helsinki,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479-87; cf. P. Albenda, 2005. “The Queen of the Night Plague: A Revisi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5, 2, pp. 177 ff.

13) *PGM*, IV 337, 1417, 2484, 2749, 2913;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삶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카렌다인데, 그리스 카렌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영향을 받은 바빌로니아나 아나톨리아 혹은 시리아 원형에 기인하여 나타났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eg. Langdon, *BMSC* 혹은 *CAH*, 105-6, 138. 특히 그리스와 바빌로니아의 축제일은 같은 기반을 가지는데, 11월과 12월 사이의 달인 키슬레프(Kislev)달에 에레슈키갈, 지하 세계의 여왕에게 땅의 풍요를 위해 현주가 주어졌던 것과 비슷하게, 아티카에서의 할로아 축제 역시 포세이돈 달(12월-1월)에 이루어졌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죽음 조상에 대한 봉헌제사는 9월과 10월 사이의 테쉬리트(Teshrit)달에 이루어지는데, 아테네의 게네시아, 즉 조상에의 연회는 비슷한 시기인 보에드로미온 달에 떨어진다. G. Thomson, 1943. “The Greek Calendar,” *JHS* 63, pp. 52-65.

들은, 그 원음이나 원형이 가장 그대로 유지되어 전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어로 된 한 마술 문서에서 “헤카테 에레슈키갈의 주문은 처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나쁜 것이) 만약 가까이 오면, ‘나는 에레슈키갈이다. 나는 엄지손가락들을 잡고 있으며, 어떤 나쁜 것도 그녀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해라.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그것이 다가오면 너의 오른쪽 발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해라 ‘에레슈키갈, 처녀, 암개, 뱀, 화관, 열쇠, 마술사 지팡이, 타르타루스 여주인의 황금 샌달’. 그러면 너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그리스어 마술 문서에서도 에레슈키갈의 이름은 주문의 키워드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마술 문서에서 에레슈키갈이 헤카테와 함께 소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리엔트 지역의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은 그리스 신화에서의 헤카테와 페르세포네와 자주 연결된다.<sup>16)</sup> 즉 에레슈키갈은 페르세포네, 헤카테, 그 외에도 악티오피, 네부토수알레트(Persephone, Hekate, Aktiophi, Neboutosouaeth)<sup>17)</sup>와 동일시되면서 이들은 그리스 마술 문서PGM(Papyri Graecae magicae)를 비롯한 마술 문서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으며, 모두 ‘지하의 여신’의 이미지를 가진다.

14) A. Fadhli, 1990. Die in Nimrud/Kalhu aufgefundenene Grabinschrift der Jaba, *Baghdader Mitteilungen*, 21, M van de Mieroop. “Revenge, Assyrian style,” p. 13에서 재인용.

15) *Papyri Graecae magicae*(PGM), LXX, 4-25; PGM이란 아나스타이시(Jean d’Anastasi)가 수집한 마술 파피루스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이를 영어로 번역한 베헤(Hans Deiter Betz)는 이들 파피루스들의 출처가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고대 무덤 혹은 신전 도서관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H.D. Betz, 1986, *The Greek Magical Papyri in Translation including the Demotic spel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들 중 대다수가 파괴된 가운데 남아있는 자료들은 고대 지중해의 마술적 관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차자료이다. 현존 대부분의 파피루스들은 그리스어 혹은 고대 콥틱어로 쓰여져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에 속한다. 하지만 마술문서라는 특성상 훨씬 이전 시대로부터 사용된 이름이나 관행을 담고 있음이 틀림없다. H.D. Betz, 1980. “Fragments from a Catabasis Ritual in a greek Magical Papyrus,” *History of Religions* 19, 4, p. 288; *Papyri Graecae magicae*, ed. A. Henrichs, LXX.

16) PGM IV, 2745-50.

17) J. Zuedel은 neboutosouaeth를 이집트의 지하의 주인 neb n to sual + eth 즉 세트-티폰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바빌로니아 신 네보(Nebo)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예) PGM XII 116 note; 또한 aktio-phi는 여신의 형용사로 쓰였다. eg. PGM IV 2473 (he theos aktio-phis); 2484, aktio-phi eresxgal neboutosouaeth, Preisendanz (Pauly-Wissowa, xvi 2158 ff)





## 2.2. 페르세포네

그리스의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는 다른 올림포스 신들과 달리 베일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여신이다. 페르세포네는 흔히 어머니 데메테르의 납치당한 딸(코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sup>18)</sup>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원전 7-6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메테르 송가』가 있다.<sup>19)</sup> 페르세포네가 꽃을 따다가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된 후, 딸을 찾아 세상을 헤매던 데메테르는 헤카테 여신의 도움으로 그 진상을 알아낸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슬픔으로 모든 초목이 시들게 되자 신들의 왕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어머니 데메테르에게로 되돌아 오게 된다. 그러나 돌아오기 전 지하에서 하데스가 권한 먹을 것, 즉 석류를 먹었던 그녀는 일 년 가운데 네 달 정도를 하데스에게로 돌아가 지하의 여신으로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이 계절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신화와 관련하여 발달된 밀의 의식은 아테네 근교에서 이루어진 엘레우시스 밀의 의식이다.<sup>20)</sup> 고대 세계 최대의 비밀로 불리는 엘레우시스 의식의 주인공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페르세포네라기보다는 그녀의 어머니로 나오는 데메테르라고 볼 수 있다. 엘레우시스 의식에서 페르세포네는 자기의 이름보다도 코레(딸)라는 명칭으로 더 잘 불린다.<sup>21)</sup>

18) 후기의 오르페우스 문헌에서 페르세포네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부인으로 나온다. 데메테르는 땅을 의미하는 ‘*de*(혹은 *ge*)’와 어머니를 뜻하는 ‘*meter*’의 합성어로 요약되는데, 그녀가 생식과 농업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음을 확실하다. 그런데 그녀는 초기 철기 시대까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호메로스의 작품에 데메테르는 그저 제우스의 수많은 애인 가운데 하나로, 곡물의 단순한 공급자로, 이아시온의 부인 정도로만 언급된다.

19) A.W. James, 1976, “The Homeric Hymn to Demeter,”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6, pp. 165-8; R. Janko, 1982, *Homer, Hesiod, and the Hymns*, Cambridge, p. 183.

20) 2004, “엘레우시스 미스터리아, 데메테르, 이시스, 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4집, 한국서양사학회 참조.

21) 뒤에서 논증하게 되듯이, 페르세포네는 원래부터 데메테르의 딸이었다기보다는 독립적인 지하의 여왕이었지만 점차 데메테르와 통합되어 모녀 사이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원래의 페르세포네(Persephone) 혹은 페르세파타(Phersephatta) 숭배가 여러 정복민, 혹은 이주민들에 의한 복속, 혼합 과정 속에서 데메테르의 딸로 변용되어서 숭배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위의 신화 외에, 페르세포네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성격의 신화가 전한다. 페르세포네와 시원적으로 관련 있는 지명은 엘레우시스가 아니라 시칠리아와 테바이, 크레타 등이며, 그 가운데서도 시칠리아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시칠리아에서 태어났거나, 제우스가 시칠리아를 페르세포네에게 주었다든가, 시칠리아의 왕비이거나, 거기서 꽃을 따다 납치되었다는 것 등이다.<sup>22)</sup> 페르세포네를 시칠리아와 연관시켜 보는 것은 아마도 고대인들은 화산 폭발이 활발하던 시칠리아 아이트나 화산 아래 지하로 내려가는 세계가 있다고 본 것과 연관 있었던 듯하다. 스타티우스는 페르세포네를 죽은 자의 땅 엘리시아의 여왕으로 부르며, 이곳이 아이트나 바위 아래에 있다고 보았다.<sup>23)</sup> 이폴로도로스는 페르세포네가 제우스와 저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 사이의 딸이라고 전한다.<sup>24)</sup> 이는 페르세포네의 지하의 여왕으로서의 탄생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페르세포네가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신화이다. 페르세포네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제우스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페르세포네와 제우스가 인간에게 서로 자기 이름을 주고 싶어서 다투게 되었을 때,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심판하기를 제우스가 생명을 주었으므로 살았을 때는 제우스가, 죽었을 때는 페르세포네가 몸을 가지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sup>25)</sup> 오르페우스 찬가(29)에서 페르세포네는 생명의 원천이자 풍요의 여신으로 그려진다.

또한 엘레우시스 의식에서 나오는 데메테르나 코레 등은 지극히 그리스적인 이름이지만, 페르세포네라든지, 이의 여러 변형으로 보이는 이름인 페레파타(Pherephatta), 페리포나(Periphona), 페르세포네이아(Persephoneia)<sup>26)</sup> 등은 그리스적인 혹은 인도유럽적인 이름이 아니다. 춘츠(G. Zuntz)는 페르세포네를 수식하는 형용사 에파이네(epaine), 아가베(agave), 아그네(agne) 등을 예로 들며, 페

22) eg. Apuleius, *The Golden Ass*, 6, 2; Ovid, *Fasti* 4,443

23) Statius, *Achilleid* 1,

24) Apollodorus, *Bibliotheca*, 1, 13.

25) Hyginus, *Fabulae*, 220,

26) cf. Plato, *Cratylus*, 400d & 404b.

르세포네가 데메테르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더 초기적인 기원을 가졌다고 주장한다.<sup>27)</sup> 『데메테르 송가』보다 더 오래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일리아스』에서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딸이 아니라 저승의 신 하데스의 부인으로서만 그려지고 있다.<sup>28)</sup> 무엇보다도 핀다로스의 두 번째 올림피아 노래에서 지하 세계가 언급되는 가운데, 하데스에 대한 언급은 없고 페르세포네가 압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승 세계에서 죽음 후의 일을 결정하는 이는 하데스가 아니라 바로 페르세포네인데, 그녀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대속, 새로운 생명의 탄생, 영혼의 전이 등 모든 죽음과 생명에 관련한 일을 주관한다. 여기서의 페르세포네는 꽃을 따다가 납치당하는 데메테르의 나약한 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무섭고 냉혹한 여왕으로, 여러 의식과 신앙 행위를 통해서 섬겨져야 하는 존재로 나타난다.<sup>29)</sup>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자’라는 이름의 어원처럼, ‘색깔 없는 투명 인물’에 가깝다. 아테네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하데스의 어머니를 헤카테라고 하는데(아가멤논, 1235), 헤카테가 페르세포네와 동일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데스를 낳은 어머니가 바로 페르세포네가 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바브(A.A. Barb)는 지하의 왕 하데스보다 더 오래되고, 더 강력하였던 것은 아마도 페르세포네 여신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sup>30)</sup> 이러한 페르세포네는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과 닮은 점이 많다.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실제로 마술 문서에서 에레슈키갈과 페르세포네, 헤카테는 동일시되며,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리엔트에서의 에레슈키갈이 지하의 주인이며 남편 네르갈이 처음에 종속적 인물로 등장하는데 비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가 지하의 주인이며, 페르세

27) G. Zuntz, 1971, *Persephone*, Oxford: Clarendon Press, 83 ff.

28) eg. Hom, *Odysseus*, 5, 125-6; *Iliad*, 2, 695.

29) Pindaros, *Dirges Fragment* 133.

30) A.A. Barb, 1966, “The Mermaid and the Devil’s Grandmother: A Lecture,”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9, pp. 20-21, 주 116) 민트라는 이름의 님프가 하데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원하자, 민트는 ‘검은 눈’의 페르세포네보다 자신의 용모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데스가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장담하다가 히브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페르세포네의 출신이 보다 동쪽이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Oppian, *Halieutica* 3, 485.

포네가 종속적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또한 네르갈이 지하세계에서 에레슈키갈의 계략에 의하여 음식과 섹스를 하게 된 후, 에레슈키갈의 남편으로서 지하의 남주인이 되는 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의 계략에 의하여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음식인 석류 몇 알을 먹게 되고, 하데스의 부인으로서 지하 세계의 여주인이 되게 된다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오리엔트의 에레슈키갈이 후대에 서서히<sup>31)</sup> 그리고 특히 그리스로 전승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되다가 지하 세계의 주인의 섹스와 젠더 역할이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sup>32)</sup>

참고로, 버날(M. Bernal)은 데메테르-페르세포네 이야기를 이집트의 이시스-네프티스 모티브와 비교하면서 페르세포네를 네프티스와 연관한 바 있다.<sup>33)</sup>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그리스 데메테르 여신의 오리엔트적 기원에 관한 글에서 데메테르 여신 숭배가 특히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숭배(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 여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다.<sup>34)</sup>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오시리스를 최초의 미라로 만든 이들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이시스는 물론 네프티스 역시 지하세계와 연관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네프티스는 이시스의 아류적인 존재, 그녀에게 종속적인 면을 보이므로, 초

31) 후일 아시리아 제국 시기가 되면, 이슈타르 여신을 제외한 오리엔트의 여러 여신들은 남신들의 종속적 존재로 확실하게 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그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에레슈키갈의 남편이 된 ‘네르갈에게 바치는 찬가’나 『에누마 엘리쉬』의 마르둑과 티아마트 신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32) 이와 관련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지하 세계와 통하는 원형의 바다를 의미하는 Abzu라는 단어 역시 원래 섹스 구별이 없는 단어였지만, 후일 70인역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아비소스(Abyssos)라는 여성 젠더로 바뀌면서 악이나 강력한 악마의 이름을 뜻하게 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남성형 어미 ‘os’를 가지면서도 여성형 명사가 된 것이다. 초기 카오스의 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궁 Metra 혹은 Hystera가 고대 그리스 의학과 그 뒤를 이은 비잔틴 시대 후기 중세 부적(히스테라, 너 검고 거무스레한 것, 뱀처럼 꼬리를 맡은 것, 사자처럼 울부짖는 것, 뱀처럼 쉼을 하는 것, 여기 양처럼 누우라고 유인하고 있는)에서 동물 모양으로 온갖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은유되는 점은 흥미롭다. cf. A.A. Barb. 1966. “The Mermaid and the Devil’s Grandmother: A Lecture.”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9, p. 9.

33) M. Bernal, 1987.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P. 70.

34) 2004. “엘레우시스 미스터리아, 데메테르, 이시스, 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4집, 한국서양사학회.



기 수메르 문헌에서 보이는 이난나(이시스와 동일시될 수 있는)까지 꿈작 못하게 하였던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의 위상과, 그리스의 데메테르의 납치당하는 연약한 딸 페르세포네의 중간적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2.3. 헤카테와 키르케

에레슈키갈과 페르세포네에 비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신 중 대표적인 이는 헤카테인데, 그녀 역시 에레슈키갈과 페르세포네의 중간 사슬쯤 되는 여신으로 보인다.<sup>35)</sup> 헤카테는 『데메테르 송가』에서 페르세포네의 보호자이자 인도자로 그려진다. 데메테르가 딸을 잃고 헤멜 때 다른 신들이 모두 모른다고 하였을 때, 헤카테가 유일하게 같이 횃불을 들고 찾아다녔고 태양에게 물어서 페르세포네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었다.<sup>36)</sup> 또 헤르메스와 더불어 지하에서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도왔다. 남이탈리아 조각에서 저승의 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옆에 헤카테가 서 있는 것도 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헤카테와 페르세포네는 동일시되는데, 2세기경 아풀레이우스는 헤카테를 ‘세 얼굴의 페르세포네’로 표현하기도 하였다.<sup>37)</sup>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많은 마술문서에서 헤카테는 페르세포네나 에레슈키갈 여신과 함께 나온다. 이러한 헤카테는 오리엔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sup>38)</sup> 헤카테의 딸 혹은 친척인 키르케나 메데이아의 고향은 흑해 연안 콜키스이다.<sup>39)</sup> 또 메데이아가 낳

35) 최혜영, 2005. “헤카테 여신의 오리엔트적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16집,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36) 『데메테르 송가』, 1, 24; II, 51-59.

37) Wilamowitz, 1, 169 f.

38) 헤카테 숭배가 열렬하였던 보에오티아 지역은 시칠리아와 더불어서 페르세포네와 메두사 숭배도 널리 퍼져있었던 곳으로 오리엔트 페니키아 출신의 카드모스가 세웠던 도시국가 테바이가 있었고, 페르시아 침공 당시 아르고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친페르시아 세력이었다.

39) 이 외에도 카산드라, 헤쿠바 등의 트로이아를 비롯한 오리엔트 출신의 여성들이 헤카테와 관련된다. 헤카테는 그리스 영웅 이야손을 따라 나선 메데이아에게 ‘저런, 우리의 고향을 떠나는구나, 불행한 소녀여. 이제 그리스인들 사이로 떠돌아다니겠구나. 그러나 널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Valerius Flaccus, 6, 495.

은 아들 메도스는 메디아의 조상이 되었으며, 메디아 왕의 외손자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왕이다. 『신통기』에서는 페르세이스가 키르케의 어머니이자 메데이아의 할머니로 나온다. 여기서 페르세이스는 헤카테의 어머니, 혹은 동시에 헤카테 본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헤카테의 딸로 알려진 키르케 역시 페르세포네와 에레슈키갈과 비슷한 면을 띠고 있다.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의 끝에 있는 섬, 살아 있는 자의 세계를 떠난 미지의 세계의 여신이라는 점에서 페르세포네와 관련되어 있다. 키르케의 어원은 *kirkos* 즉 매의 여성형으로 여성 매를 의미하는데, 한편으로는 태양,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 세계와 관련한 여신이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고대인들은 태양과 지하 세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크레인(G. Crane)은 페르세포네와 키르케의 놀랄 만큼 닮은 모습을 소아시아나 시리아 계통의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아가 키르케는 수메르 계열에서의 에레슈키갈과 닮았다고 주장한다.<sup>41)</sup>

### 3. 메두사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대양(오케아노스) 저편에서 밤에 노래부르는 세 자매인 고르고네스(고르곤)를 소개한다. 고르고네스 세 자매는 스테노, 에우리알레, 메두사 등인데, 이들은 페르세포네의 지하세계에 산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서 고르곤, 그 무서운 괴물의 머리를

40) 시칠리아 출신의 작가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태양신 헬리오스에게는 두 아들 아에테스와 페르세스가 있었고, ‘페르세’라고도 불리던 헤카테는 페르세스의 딸인데, 아에테스와 결혼하여 키르케 등을 낳았다. 오르페우스 찬가에서는 헤카테를 ‘페르시아의 아르테미스’라고 부른다. Hesiodos, *Theogonia*, 956-62; Diodorus Siculus, 4.45.1.

41) G. Crane, 1985, *Calypso: Stages of Afterlife and Immortality in the Odessey*. Dep. of the Classics, Harvard University, Degree in Classical Archaeology; 1986,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90. pp. 253-260

올려 보내지 않도록 간구한다.<sup>42)</sup> 메두사를 비롯한 고르고네스는 페르세포네 옆에 거주하면서 그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던 셈이다. 시칠리아의 화산 아이트나와 특별한 관계를 갖는 페르세포네처럼, 고르고네이온(메두사 머리형상)도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 그 중에서도 히메라, 세게스타, 셀리노스 등 시칠리아에서 많이 발굴된다.<sup>43)</sup> 또한 고르고네스는 지하세계를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의 이모뎀이 되는데, 고르고네스의 이복자매인 에키드나(고르고네스의 어머니 케토의 다른 딸)가 케르베로스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고르고네스를 대표하는 메두사의 이미지가 지하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리슨(J.E. Harrison)은 고르고네이온을 최초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지하세계의 괴물의 일종으로서, 귀신을 쫓는 일종의 마스크로 해석하였고, 크론(J.H. Croon)도 메두사와 지하 세계의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sup>44)</sup>

헤로도토스의 『신통기』에 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메두사에 관한 신화에서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뱀 머리를 자르고 그 피에서 태어난 천마 페가수스를 얻게 된다.<sup>45)</sup> 하지만 이러한 문헌 사료보다 더 풍부하고, 시기적으로도

42) *Od.* 11, 633

43) J.H. Croon, 1955, "The Mask of the Underworld Daemon-Some Remarks on the Perseus-gorgon Story," *JHS* 75, pp. 9-16, esp. 12.

44) J.E. Harrison, 1922, *Prolegome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 ff; J.H. Croon, 1955, "The Mask of the Underworld Daemon-Some Remarks on the Perseus-gorgon Story," *JHS* 75, p. 14.

45) Hesiodos, *Theogonia*, 270-82, 고르곤의 어원은 아마도 gorgopos, 즉 뿔어지게 보는 자라는 뜻이다. 메두사의 유래에 대해서, 지글러(Ziegler)는 메두사가 원래는 화산 분출, 대양의 울부짖음, 바다 물결 같은 자연 현상을, 갠데헨스(Gädechens)는 둥근달의 음울한 이미지를, 로셔(Roscher)는 천둥 구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른 한편 쿡(Cook), 리지웨이(Ridgeway)와 해리슨(Harrison)은 리비아 사막의 무서운 괴물을 나타낸 것으로, 혹은 고릴라, 원숭이, 문어 등의 자연현상이나 자연물과도 관련시켰다. 또한 뮐러(Müller)처럼 고르곤이란 인간의 두려움, 분노, 냉소 등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정신분석적 심리학에서는 악몽이 고르곤 머리가 처음 나오게 된 이유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트랜드(Hartland)와 닐슨(Nilsson)은 페르세우스-고르곤 주제는 영웅 관련 민간 설화가 살아남은 대표적인 것이라 해석하였다. cf. A.L. Frothingham, 1911, "Medusa, Apollo, and the Great Mother," *AJA* 15, 3, pp. 349 ff; T. P. Howe, 1954, "The Origins and Function of the Gorgon-Head," *AJA* 58, 3, pp. 209ff; E.G. Suhr, 1965, "An Interpretation of the Medusa," *Folklore*, 76, 2, 90 ff.

앞서며,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게 분포된 여러 건축 부속물, 화폐, 도기화 등에 나타난 이미지 자료를 통해 볼 때 특기할 사실은 메두사가 뱀이 아닌 다른 상징물과 같이 나타난다는 점, 페르세우스와 아무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먼저 나타난다는 점, 그 배경도 페르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즉 메두사 머리가 사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기원전 7세기 초 중엽인데 비해서, 메두사의 뱀 머리는 테르몬 메토프(기원전 640-20년경)에서 처음 나타나며, 페르세우스가 함께 처음 나타나는 것은 기원전 7세기 말이 되어서이다.

메두사의 초기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메두사의 얼굴에 수염이 달려 있을 때도 있으며, 카미로스에서의 조각관에서 메두사의 머리는 소아시아의 자연의 (어머니) 여신 어깨 위에 있다. 기하학기 말기의 보에오티아 지역 출토 화병에서 메두사는 켄타우로스처럼 인간의 얼굴을 한 말 모습의 처녀로 묘사되어 있다. 가끔 작은 사슴이나 말을 팔에 쥐고 있거나, 새 모양의 목에 펜더, 사자, 늑대 혹은 스팅크스에 둘러싸인 메두사는 ‘동물의 여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르카딕기의 흑색상 도기에서 메두사는 곡식 이삭과 뱀을 양손에 잡고 있다. 메두사는 부적의 이미지를 가짐과 함께 우주적 질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메두사의 어원은 보호자, 여신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우이(T. P. Howe)는 주인, 주권자를 뜻하는 형용사 ‘eury-medon’의 축약형 medon에서 메두사가 나왔으며, 그 뜻은 ‘널리 통치하는 이’라고 보았다.<sup>46)</sup> 앞서, 말 처녀 모습으로도 나타난 메두사는 말의 신(Hippios) 포세이돈과 관련이 깊다. 포세이돈에 자주 붙는 수식어 역시 ‘eury-medon’이며, 메두사는 포세이돈에 의해서 임신하여 페가수스와 크리스오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이 때 페가수스는 메두사가 페르세우스에 의하여 목이 베인 후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르키라의 아르테미스 신전의 유명한 메두사 상은 그 당당한 모습으로

46) T. P. Howe, 1954, “The Origins and Function of the Gorgon-Head”, *AJA* 58, 3, p. 214.



잘 알려져 있는데, 커다란 머리에, 달려가는 모습의 메두사는 작은 크기의 크리사오르와 페가수스와 함께 ‘무릎 뛰는(무릎을 굽힌)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sup>47)</sup> 여기서 메두사는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페가수스 등을 거느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여기서도 페르세우스에



〈케르키라의 아르테미스신전의 메두사〉

의해 메두사의 목이 베어진 후에 페가수스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메두사 옆에 그녀를 옹위하는 듯이 조각되어 있는 사자는 메두사가 키벨레, 아르테미스 혹은 위대한 어머니와 동일시됨을 보여주는 듯하다. 특히 여기서 보이는 ‘무릎 뛰는’ 모습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날아가거나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태양의 움직임과 상관있다고 알려진 것이다.<sup>48)</sup>

실제로 메두사는 태양신 아폴론과도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폴론신의 대표적 성지 중 하나인 소아시아 디디메아움 신전 프리즈의 유일한 인물조각은 메두사 머리로, 각 기둥의 축에 있다. 여기서 메두사 모티브는 단순한 장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무릎을 굽힌 모습의 거대한 머리에 네 개의 날개, 머리의 두 개의 큰 뺨, 두 마리의 사자가 옆에 있는 모습의 메두사는 부정적인 상이 아니라 위대한 여

47) 기원전 6세기 시칠리아의 셀리노스 신전 메토프에서 새겨진 메두사와 페르세우스 조각에는 옆 구리에 말을 안고 있는 메두사 옆에 페르세우스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케르키라의 메두사와 후대 메두사 모습의 중간적 형태로 보인다. R. Carpenter, 1950, "Tradition and Invention in Attic Reliefs," *AJA*, p. 331.

48) ‘무릎 뛰기’는 아르카익기의 인물 표현에서 정형적으로 사용되던 자세이다. 이에 대해서 운동성을 나타낸다는 주장, 혹은 구체적인 운동의 상황이라기보다 인물의 잠재적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 N. Himmelmann, 1998, *Reading Greek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81.

신상이다. 뱀 머리 역시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것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한 보석 장식품에서 메두사가 별자리의 중간에, 즉 원래 태양의 신 헬리오스나 아폴론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sup>49)</sup> 또한 그리스 여러 도시들의 초기 화폐에서 메두사와 아폴론은 동전의 앞, 뒤 면에 나란히 나오고 있다. 메두사 머리는 기원전 4세기 말 아카토클레스 시대의 시칠리아 동전(triquetrum)에 처음 나오는데, 시칠리아는 호메로스 시대 이래로 태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히 페르세포네와도 연관이 강한 곳이다.<sup>50)</sup>

이상에서 메두사는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미지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프로팅햄(Frothingham)은 메두사를 소아시아의 아르테미스 여신과 동일시하는가 하면,<sup>51)</sup> 페타조니(Pettazzoni)와 오네팔쉬-리흐테(Ohnefalsch-Richter)는 이집트 여신 하토르가 메두사의 기원이라고 보았다.<sup>52)</sup> 후기의 부정적이고 흉측한 이미지와 달리 메두사가 원래는 자연의 여신, 위대한 어머니, 키벨레, 아르테미스나 아폴론, 하토르, 나아가 페르세포네 등과 동일시되었을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푸르트뱅글러(Furtwängler)는 수염 달린 초기의 메두사 머리를 소아시아 히타이트에서 보이는 남자 악마 마스크에서 유래했다고 보았으며, 마이어(E. Meyer) 역시 소아시아 흠바바(특히 굽힌 무릎)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sup>53)</sup> 홉킨스(Hopkins)는 그 기원을 복합적으로, 즉 히타이트의 어머니 여신과 이집트의 베스신(특히 돌출한 혀, 그리고 아

49) A.L. Frothingham, 1911. "Medusa, Apollo, and the Great Mother," *AJA* 15, 3. p. 352.

50) 주 26 참조.

51) A.L. Frothingham, "Medusa, Apollo, and the Great Mother," pp. 349-377.

52) Ohnefalsch-Richter, 1921-2. *L'Imagerie phénicienne et la mythologie iconologique chez les Grecs*, pp. 128ff.; R. Pettazzoni, *Bollettino de'Arte*, S. II, I, pp. 491 ff.; C. Hopkins, 1934. "Assyrian Elements in the Perseus-Gorgon Story." *AJA* 38, 3. p. 344에서 재인용.

53) E. Meyer, 1914. *Reich und Kultur der Chetiter*, Berlin, Fig. 83, pp. 113-4. 흠바바는 『길가메쉬 서사시』에 나오는 숲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주인공 길가메쉬와 엔키두에 의해 죽는다. 흠바바를 죽인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난나에 의하여 하늘 황소 구갈라나(Gugalanna)가 파견되는데, 구갈라나 역시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때문에 엔키두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구갈라나가 지하의 여왕 에레슈키갈의 첫 번째 남편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cf. "Ishtars' proposal and Gilgamesh' refusal," *History of Religion*, p. 161. 이난나 역시 키르케나 에레슈키갈과 함께 죽음의 여신으로 본다.

시리아 양식(돌돌 말린 머리모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페인(H. Payne)은 메두사와 함께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미루어 아시아 특히 아시리아의 영향이 강하다고 보았다.<sup>54)</sup>

이처럼 메두사 모티브는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혹은 (이집트영향을 받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등지로부터 그리스로 유래되어 혼합되면서 변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메두사는 이집트와 아시아를 비롯한 오리엔트 영향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게 되었으며, 전파된 곳의 각 지역적 특색이나 전통에 따라 각각의 차이를 만들어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무서운 얼굴과 남자 같은 몸을 가진 여성 괴물의 형상으로 된 것은 아르카익기 그리스 계통 화가들의 독특한 창조물일 수 있다.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미술에서 메두사는 처음에는 수염을 가진다든가, 남성, 혹은 양성인 것처럼 보이다가, 점차 매우 흉측한 여성 괴물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다시 고전기 이후 일부 그리스화가들은 메두사를 순화시켜, 외모와 자세에 있어서 현격하게 다른 메두사, 예컨대 눈을 감고 잠이 든 메두사, 혹은 예쁜 여성 메두사(기원전 4세기말경 보편화됨)로 바꾸어놓았다. 메두사 도상은 주술적인 역할과 더불어 이중의 기능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데, 젊은이와 말, 영웅의 보호자, 또는 반대로 그 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리스 도상학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메두사 이미지는 오리엔트 문화가 그리스 문화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 4. 페르세포네와 페르시아

그렇다면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낸 영웅 페르세우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페르세우스 모티브의 기원을 찾으려 한 학자들은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54) 예컨대 페니키아 공방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풍뎡이모양 장식품에서 베스 신이 고르곤 머리를 그의 머리 위에 올리고 있고, 또한 거꾸로 고르곤이 베스의 머리를 올리고 있는 그림은 이집트의 베스 신과 메두사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A.L. Frothingham, "Medusa, Apollo, and the Great Mother," p. 368; H. Payne, 1931. *Necrocorinthia*, Oxford. pp. 79ff.

모티브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고 본다. 예컨대 홉킨스(C. Hopkins)는 페르세우스와 고르곤 이야기가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쉬와 흠바바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본다.<sup>55)</sup> 바브(A.A. Barb)는 『에누마 엘리쉬』에서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이 ‘짤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를 죽인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한다.<sup>56)</sup> 즉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이나 영웅이 적을 물리치는 모티브가 페르세우스가 고르곤을 물리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퇴치당하는 괴물 메두사를 흠바바, 티아마트 혹은 아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메르 문화의 영웅 길가메쉬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등에서 민족적 영웅으로 간주되었다면, 그리스 신화에서의 페르세우스는 신이 되지도, 크게 인기를 끈 영웅이 되지도 못하였다.<sup>57)</sup> 이는 페르세우스가 그리스적 사고에서 ‘순수한 그리스’ 영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sup>58)</sup> 많은 그림들에서 페르세우스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프리기아 모자는 페르시아, 아나톨리아 등의 오리엔트 출신임을 의미하였다. 즉 페르세우스는 신화적으로 페르시아와 연관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의 고향 미케네(아르고스)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격돌하였던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테바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친페르시아 진영에 속하여 있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공하기 전에 아르고스 인에게 ‘우리는 같은 조상이므로 서로 싸우지 말자’는 취지의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였던 것이다.<sup>59)</sup> 당시

55) C. Hopkins, 1934, “Assyrian Elements in the Perseus-Gorgon Story,” *AJA* 38, pp. 341-358.

56) A.A. Barb, 1966, “The Mermaid and the Devil's Grandmother: A Lecture,”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9, pp. 1-23.

57) 로버트 리더, 퀴네르트는 페르세우스를 미케네 시대의 영웅으로 간주하였고, 닐슨 역시 미케네 시대 민화가 그리스 영웅 신화에 스며든 가장 좋은 예로 보았지만, 기원전 8-7세기에 이르러서야 스며든 것 같다.

58) 하우이(T. P. Howe)도 페르세우스 신화는 그리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T. P. Howe, 1954, “The Origins and Function of the Gorgon-Head,” *AJA* 58, 3, p. 218.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에는 오리엔트적 기원을 지닌 여성으로, 페르세우스와 이디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 사이에 난 아들 페르세스는 페르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cf. Herodotos, *Historiai*, 2, 91 ; 6, 54. 카리안다의 스킨락스나 아이스킬로스, 헬라니코스 등 다른 고대 작가들의 글에서도 페르세우스는 페르시아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59) Herodotos, *Historiai*, 7, 152.

반페르시아 진영의 선두에 섰던 아테네인은 적대 국가의 건국자로 알려진 페르세우스를 홀대하고 싶었을 것이며,<sup>60)</sup> 현전 사료의 대부분이 아테네 작가들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면 페르세우스 관련 영웅 신화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이야기를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쉬와 흠바바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보았던 홉킨스(C. Hopkins)는 흠바바는 폭풍 같은 소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 입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카테와 동일시되었던 페르세포네의 이름 역시 ‘페르세의 목소리(포네)’쯤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즉 페르세포네는 페르세우스의 소리로서 지하의 여왕으로서 죽음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sup>61)</sup> 이와 관련된 한 사료는 한 에트루리아 무덤에서 발견된다. 코르네토에 있는 에트루리아 무덤 프레스코 화에는 장례식에서 행해졌을 것이 분명한 검투경기와 관련한 그림에서 죽을 포로를 다루는 가면을 쓴 사람 위에 phersu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 알트하임(F. Altheim), 텍케(Deecke), 프리드랜더(Friedländer), 스커취(Skutsch) 등의 학자들은 가면을 쓴 인물 ‘페르수(phersu)’를 장례식 책임자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알트하임은 나아가 그리스의 페르세우스 이름은 페르세(pherse)에, 페르세포네 이름은 페르세프나이(phersepnai)에 상응한다고 보고, 페르세포네, 페르세(헤카테), 페르세우스, 페르소, 페르세이스, 페르세스 등의 페르세(perse)와 관련된 모든 이름들은 ‘지하세계’와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sup>62)</sup> 이 단어는 前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sup>63)</sup> 이러한 맥락에서도 페르세포네, 헤카테, 페르세우스(메두사)

60) 코린토스에서 나온 현존하는 소수의 도기와 많이 남아 있는 아테네 흑색상 도기에서 페르세우스의 모습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아티카 도기에서 그는 키톤니스코스를 걸치고, 모자, 날개 달린 샌달, 혹은 외투 혹은 동물가죽(혹은 둘다)을 입고 나타나며 가끔 수염이 있는데 비해서, 코린토스 도기에서 그는 누드로 그려져 있다. E.G. Pemberton, 1983, “A Late Corinthian Perseus from Ancient Corinth,” *Hesperia*, 52, 1, pp. 67-68. 아테네인에게 옷을 입은 것은 ‘오리엔트적’이며, 그리스적인 것은 누드로 비추어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 Pausanias, *Periegesis*, 2.18.1.

61) 흥미로운 것은 페르세우스의 딸 이름이 고르고포네(Gorgophone, 고르곤의 소리?)라는 것이다.

62) F. Altheim, 1929. *Archiv f. Rel. Wiss.*, 27, 35 ff; cf. J.H. Croon, 1955. “The Mask of the Underworld Daemon-Some Remarks on the Perseusgorgon Story,” *JHS* 75, pp. 15-16.

는 모두 지하세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그 뿌리는 페르시아를 비롯한 오리엔트 지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오리엔트와 그리스는 젠더에서 다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인데, 오리엔트에서는 괴물이 남성 흉바바인데 비해서, 그리스에서는 여성 메두사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sup>64)</sup> 참고로 오리엔트와 그리스에서 젠더 변이의 대표적인 예는 스팅크스로서, 그리스 신화에서 스팅크스는 메두사의 손녀뱀이다(메두사의 이복누이인 에키드나의 딸 키마이라가 낳았다).<sup>65)</sup> 이는 이집트의 스팅크스와 매우 다른 형국이다. 이집트에서는 스팅크스의 사자의 몸은 태양을 상징하며, 통치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66)</sup> 파라오의 분신으로 파라오와 함께 적을 물리친다고 생각된 이집트의 스팅크스와 축출되어야 할 괴물 이미지로서의 그리스의 스팅크스는 겉부터 너무 다르다. 헤라는 테베왕 라이오스를 벌하기 위해서 스팅크스를 보내고,<sup>67)</sup> 스팅크스는 일종의 골치덩어리로서 테베 주민들을 괴롭히다가 오이디푸스에 의해 퇴치된다. 즉 오리엔트에서는 용감한 남성적 존재였던 스팅크스가 그리스에서는 해로운 여성적 존재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은 이와 연관하여 시사적이다.<sup>68)</sup>

63) 페르세우스의 이름에 대해서 브와삭(Boisacq)은 perthein, pertho라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본다. 리텔-스코트 정의에 의하면 그 뜻은 ‘약탈하다 황폐케 하다’ 혹은 ‘파괴하고 죽이는 사람’이며, 부트만(Buttman)과 포트(Pott), 빌러(Bieler), 울란시(Ulansey) 등도 이가 페르세우스 이름의 기원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cf. Ulansey, 1989, *The Origins of the Mithraic Myste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9, p.129. n. 5; 윌라모비츠(Wilamowitz)와 크론(Croon)처럼 페르세우스는 아무 것도 파괴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오리엔트 출신의 강력한 지도자 페르세우스의 이름이 점차 일부 그리스 적대자들에게는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어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64) 이와 관련하여 하몬(Harmon) 교수는 시리아 여신 아타(Ata)의 영웅이 콤바로스(Kombabos)이며,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여신 키벨레의 애인이자 영웅이 아티스라는 점에 착안하여, 아티스와 아타를 같은 이들로, 콤바스와 흉바바(아시리아) 혹은 하와와(마빌로니아)를 같은 이들로, 키베로스 갈루스, 키베베, 키벨레를 같은 이로 보았다. Lucian, *Loeb Classical Library*, Vol. IV, p. 378, n. 1. cf. C. Hopkins, 1934, “Assyrian Elements in the Perseus-Gorgon Story,” *AJA*, 38, 3, p. 357.

65)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의하면 스팅크스는 에키드나의 딸이다. 또한 에키드나는 메두사의 아들 크리사오르와 오케아노스의 딸 카릴로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도 전하며, 오르토스와와 사이에 스팅크스와 네메아 사자를 두었다.

66) E.G. Suhr, 1970, “The Sphinx,” *Folklore*, 81, 2, p. 100.

67) Apollod., *Bibliotheca*, 3.5.8.



##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지하세계와 관련한 여성들 및 관련 인물을 젠더 변용적 시각을 결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에레슈키갈과 그리스의 페르세포네를 두 축으로 그 사이 지하 여신의 면모를 지녔던 헤카테, 키르케 등을 살펴보았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일컬어지는 수메르 문명에서 지하의 여신은 에레슈키갈이었다. 에레슈키갈은 하늘과 땅의 여왕 등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신들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여신이었다. 에레슈키갈과 가장 닮은 그리스 여신은 페르세포네이다. 양자는 저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권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에레슈키갈은 남신 네르갈을 납치해와서 남편으로 삼을 정도로 지하의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누렸고, 이후 2천년 이상 그리스어권을 비롯하여 비문이나 특히 마술문서 등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여신이 되었다. 그러나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납치당한 연약한 딸이자 저승의 왕 하데스의 간계로 지하세계에 일정기간만 머무르게 되는 명목상 지하의 여왕처럼 그려진다.

하지만 더 오래된 전승에서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와 아무 관련없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여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페르세포네는 에레슈키갈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적 지하의 여왕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마술 문서에서 둘의 이름이 나란히, 또 가장 빈번히 불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여러 경로로 그리스에 도달한 지하의 여왕 페르세포네는 처음에는 독자적 지위를 누리다가 점차 데메테르의 딸로, 하데스의 부인으로 변용해갔다고 추정된다.

68) 고대 그리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석관이나 모비 등에 있는 관을 쓴 스팅크스는 아마도 무덤의 수호자나 죽음의 다이몬으로 이집트의 스팅크스와 그리스 테베의 스팅크스의 중간적 형태였을 법하다. cf. G.M.A. 1940. Richter, "An Archaic Greek Sphin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35, 9. p. 180.

또 메두사도 오리엔트와 관련이 없지 않다.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낸 영웅 페르세우스 모티브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은 이가 오리엔트에서 전래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페르세우스와 관련한 에트루리아 무덤의 한 프레스코화를 통하여, 페르세포네, 페르세, 페르세우스, 페르세스 등의 perse와 관련된 이름들은 ‘지하세계’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에레슈키갈을 비롯하여 페르세포네, 헤카테, 메두사, 페르세우스는 모두 지하세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그 뿌리는 오리엔트 지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메두사의 성격도 페르세포네와 같이 변화되어 왔음으로 보게 된다. 메두사는 페르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여성 괴물 캐릭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다 앞선 건축, 화폐, 도기화 등에 나타나는 메두사는 동물의 여주인이자 우주적인 힘을 가진 여신으로 나타난다. 메두사라는 말의 어원 역시 ‘보호자’, ‘널리 통치하는 이’라는 것이다. 강한 힘을 가진 긍정적 여신으로서의 메두사 모티브는 소아시아, 시리아 등지로부터 그리스로 유래되면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도상학적으로 메두사는 처음에는 수염 등의 남성 같은 모습도 보이다가, 점차 흥측한 여성 괴물의 모습으로, 다시 고전기 이후 특히 기원전 4세기말경이 되면 예쁜 여성으로도 그려진다. 그리스 도상학에서 이처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메두사 이미지는 오리엔트 문화가 그리스 토착 문화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젠더와 관련하여서 흥미로운 점은 에레슈키갈은 남편 네르갈을 납치해와서 지하의 왕으로 삼은 반면, 페르세포네는 지하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당해와 지하의 여왕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메두사의 초기 모습은 수염을 가지는 등, 남성적 모습으로도 나타났다가 점차 여성 괴물로 변해갔다는 점이다. 초기 오리엔트 문명의 경우 젠더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 같은 신이 지역에 따라서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나타나며, 이는 초기 그리스 문헌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언제부터 젠더 구별이 뚜렷해졌는지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리스의 경우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아마도 기원전 700년경을 전후한 아르카이크 초기 즈음, 즉 법, 관습, 폴리스라는 틀이 형성되던



시기에 남녀 사이의 지위나 경계가 심해졌으리라 추정된다.<sup>69)</sup> 젠더 구별이 더 엄격해지고 고착되던 기원전 7-6세기경 원래는 지하의 당당한 여왕이었던 페르세포네가 납치당하는 가련한 딸로 그려지기 시작하며, 메두사 형상도 이즈음을 계기로 뚜렷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필자가 보기에 젠더 의식은 오리엔트와 대조되는 그리스라는 지역 의식<sup>70)</sup>과 맞물려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서서히 그리스에서는 오리엔트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연약하거나 괴물스러운 것으로, ‘타자’로 격화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 대표적인 것이 메두사와 키르케 등이며, 페르세포네는 본래의 지하의 여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잃고, 납치되는 연약한 딸로서 남편 하데스에 종속적인 인물로 그려지게 된 것은 아닐까? 또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고대 지중해 세계도 본래의 유동성을 조금씩 상실하면서 점차 고착적인 문명으로 각각 자리 잡기 시작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주제어: 지중해문명교류, 지하여왕, 에레슈키갈, 페르세포네, 메두사, 페르세우스]

## 참고문헌

### 자료

Herodotos. *Historiai*.

\_\_\_\_\_. *Theogonia*.

69) 최혜영, 2008, “고대 그리스 사회의 종교: 여신과 여성-데메테르의 테즈모포리아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8집. 한국여성사학회. pp. 93-120 참조.

70) 오리엔트와 대조되는 지역으로서의 그리스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진 배경 중 하나는 아시리아의 오리엔트 세계의 통일로 말미암은 압박일 것이다.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출현은 오리엔트와 동지중해 지역의 무역로와 시장을 확대시켰을 것이지만, 가혹한 통치술은 여러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는 경계심과 적대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는 아시리아에 이어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페르시아가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 및 본토 그리스를 침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Apollodorus. *Bibliotheca*.

Homerus. *Ilias*.

\_\_\_\_\_. *Odysseia*.

Pausanias. *Periegesi, Papyri Graecae Magicae*(PGM).

*Hymn to Demeter*(LCL).

## 2차 문헌

P. Albenda. 2005. "The Queen of the Night' Plague: A Revisi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5, 2.

A.A. Barb. 1966. "The Mermaid and the Devil's Grandmother: A Lecture." *Journal of the Warburg and Courtauld Institutes*. 29.

M. Bernal. 1987. *Black Athena, The Afroasiatic Roots of Classical Civilization*. Vol. I.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G. Crane. 1985. *Calypso: Stages of Afterlife and Immortality in the Odessey*. Dep. of the Classics, Harvard University, Degree in Classical Archaeology; G.

Crane. 1986.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90.

J.H. Croon. 1955. "The Mask of the Underworld Daemon-Some Remarks on the Perseus-gorgon Story." *Journal of Hellenic Studies*. 75.

G. Delanty. 1995. *Inventing Europe, Idea, Identity, Reality*. London: St. Martin's Press.

A. M. Fiske. 1969. "Death: Myth and Ritual." *Journal of Academy of Religion*. 37.

C. Freeman. 1996. *Egypt, Greece and Ro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L. Frothingham. 1911. "Medusa, Apollo, and the Great Mother." *AJA*. 15, 3.

J.E. Harrison. 1922. *Prolegome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 Himmelmann. 1998. *Reading Greek Ar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 Hopkins. 1934. "Assyrian Elements in the Perseus-Gorgon Story." *AJA*. 38, 3.

T. P. Howe. 1954. "The Origins and Function of the Gorgon-Head", *AJA*. 58, 3.



A.W. James. 1976. "The Homeric Hymn to Demeter." *Journal of Hellenic Studies*. 96.

N. Marinatos. 2000. *The Goddess and the Warrior*. London: Routledge.

Elizabeth von der Osten-Sacken. 2002. "Überhangungen zur Göttin auf dem Burney-Relief." *Sex and Gender in the ancient Near East*. eds. S. Parpola & R. Whiting, Helsinki: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G.M.A. Richter. 1940. "An Archaic Greek Sphinx."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35, 9.

E.G. Suhr. 1965. "An Interpretation of the Medusa." *Folklore*. 76, 2, 90 ff.

G. Thomson. 1943. "The Greek Calendar." *Journal of Hellenic Studies*, 63, pp. 52-65.

J.G. Westenholz. 1998. "Goddesses of the Ancient Near East 3000-1000 BC." *Ancient Goddesses*. eds. L. Goodison & C. Morri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G. Zuntz. 1971. *Persephone*. Oxford: Clarendon Press.

최혜영. 2004. "엘레우시스 미스테리아, 데메테르, 이시스, 이난나의 비교". 『서양사론』 84집. 한국서양사학회.

최혜영. 2005. "헤카테 여신의 오리엔트적 기원", 『서양고대사연구』 16집.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최혜영. 2008. "고대 그리스 사회의 종교: 여신과 여성 - 데메테르의 테즈모포리아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8집. 한국여성사학회.

논문접수일 : 2010년 @월 @일

심사완료일 : 2010년 @월 @일

게재확정일 : 2010년 @월 @일